

종직자 가이오의 절대미션과 절대응답

-복음으로 여는 요한삼서-
사무엘상 3:7-20, 요한삼서 1:1-3

정윤돈 목사님

* **삼상3:7-20**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나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전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 **요삼1:1-3**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사무엘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이상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다. 사무엘은 하나의 기도 안에서 태어나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있었던 영적 서밋이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 어떤 일에 사장이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 아니다.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후대 램네토고, 영적 서밋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내 잘못과 실수, 부족함 속에서 아무도 못 살리고 진도도 못한 채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가이오 장로는 요한 사도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남은 자 램네토이다. ‘램네토’라는 단어 안에는 4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4가

지 단어들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절대언약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였고, 사탄의 우상문화 속에서도 제자를 찾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 증거할 요한삼서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과 가이오도 그러한 남은 자들이었다. 시대 시대마다 성경에 등장한 남은 자들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시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치유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영적 서밋이 아닌 상태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한다면 진정 치유된 사람이다. 오히려 예배를 떠나 잘 살고 잘 놀고 잘 먹는 사람은 보기에 정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사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결국 개인과 후대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인생은 짧다. 아침 이슬과 안개 같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다. 그들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았고 결국은 세계를 이끌어갔다.

오늘은 요한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종직자 가이오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하여 중요한 절대미션들과 종직자 가이오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응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1. 종직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이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식주인 가이오를 먼저 떠올린다. 그런데 성경에는 3명의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등장하고 있다. ‘가이오’는 ‘나는 기쁘다’라는 뜻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으로 기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은 계속 행동한 응답을 주신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 이래도 좋고 안 되도 좋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미 성공하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면 된다. 이래도 한 평생이고 저래도 한 평생이다. 사무엘은 하나의 기도 안에서 태어나니까 이상한 목사님과 교회 분위기였음에도 사무엘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필요가 없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삶이다.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성경에는 고린도의 가이오, 마케도나의 가이오, 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온다.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를 보낸 가이오는 세 번째 디베사람 ‘가이오’로 보고 있다. 그는 나중에 에베소지역 버가모교회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 디베 사람 가이오는 요한 사도에게 참으로 사랑을 받는 귀한 제자였다. 요한삼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도 목사님이 봤을 때 사랑하는 종직자, 사랑하는 램네토로 보여야 한다. 제가 보니까 아무나 사랑스럽지는 않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사랑스러운 사람의 공통점이 복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이 그것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치유받은 사람이다.

2. 요한 사도가 이 사랑하는 종직자 가이오에게 전달한 절대미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가이오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았다.

(1) 첫 번째 미션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서밋’이 되라는 미션을 주었다. 그 말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학교에서도 성실한 아이에게 더 꾸지람하고 문제아들에게 더 조심하듯이 목사님이 꾸지람하는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사도 요한도 잘하고 있지만 더 강조해서 ‘네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강조한다.

(2)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미션을 주었다. 요한삼서 1장 3절에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기쁜 건 다른 게 아니다. 성도들이 진리와 복음과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쁘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 없이 잘 되는 게 더 걱정된다.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쁘다. 즉 진리의 말씀중심으로 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이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먼저 니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탄이 가져다 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영적인 서밋은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말씀이 떠오르는 삶이다. 문제만 떠오르고 섭섭한 것만 떠오른다면 그건 진리와 말씀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다.

(3) 또 사탄에게 속지 말고 교회를 살리라는 미션을 주었다.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시험할 일을 준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돌아가며 시험거리를 준다. 예수님은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 기도하라 하셨다. 평소엔 믿음으로 강단을 따르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가 돌아가면서 시험을 줄 때 당한다. 그때 마귀를 이기고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마귀의 시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특히 사무엘은 어머니도 없었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이상했다. 얼마든지 시험 들만 하다. 그러나 사무엘은 영적 서밋이었다. 당시 버가모교회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다.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1장 9절과 10절에서 5가지로 평가하고 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①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 ②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심각한 영적상태다. ③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사탄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자'도 사랑하지 않고 바른 태도도 모른다. ④ 형제들도 맞지 않고 ⑤ 맞아들이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려야지 시험 들면 안 된다. 어디를 가든지 영적 서밋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4) 네 번째로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오직 그 사람과 함께 복음과 전도에 올인하라는 미션을 주었다. '테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있었다. 테메드리오에게는 오해가 있었으나 가이오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요한삼서 1장 12절에 "테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전도운동, 지교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다. 분명히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만났을 때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가이오가 테메드리오 같은 제자를 만났을 때 교회가 든든해졌다.

3. 그렇다면 중직자 가이오는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까?

(1) "범사에 잘되는"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가이오는 가정과 후대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산업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하는 일마다 잘되는 행통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요셉도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행통한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모두 행통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2) "건강"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현상이 평화롭고 건강해야 한다. 그게 복의 근원이다. 가이오는 네 가지 건강의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중직자 가이오는 네 가지 건강 뿐만 아니라 오력의 응답을 받았다. 오력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이다. 근원적 축복이고 땅대의 응답이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계속 실수하고 넘어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다. 아무 잘못이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서밋인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치유 받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3) 그렇다면 이렇게 '행통의 응답'과 '강건함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

던 비밀은 무엇일까?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았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는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 대하여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하였다. 이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뜻을 정하고 서밋타임을 가졌던 다니엘은 다니엘 1장 2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무당과 짐승이들보다 열 배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 정치, 사회 현장을 보며 다들 대단하지만 복음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혜와 총명을 가진 후대가 일어나야 한다. 그게 남은 자 램넛다.

4.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혼이 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1) 원색적인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원색복음의 핵심요절 6개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그리스도, 짧은 메시지지만 여러분의 언약, 복음이 된다면 승리한다. 이걸 붙잡고 이걸 전해야 한다. 이걸 다 알더라도 여기에 결론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된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2)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야 한다. 가이오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사도 요한으로부터 계속해서 양육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줌, 다락방, 지교회, 구역예배, 팀 모임, 참사랑 핵심포럼이다. 이렇게 양육을 잘 받은 중직자 가이오는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었다. 교회 안에서는 박사 학위가 열 개여도 겸손하게 배우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소그룹 탐시역, 다락방 사역이 중요하고 일대일 사역이 중요하다. 대중 설교로는 개인의 마음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포럼할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

(3)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전도운동과 기도운동과 말씀포럼을 하는 것이다. 선교, 전도 현장에서 은혜 받고 포럼하지 않으면 모른다. 선교현장을 보는 시간표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포럼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믿음의 생활이다. 결국 중직자 가이오는 버가모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에는 버가모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할 때다. 사탄이 사는 곳, 로마제국 속에서 순교하면서도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믿음을 배운 것이다. 가이오와 같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찾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①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최고의 언약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② Vision.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영혼이 잘될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③ Dream. 우리의 꿈은 성공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와 꿈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④ Image. 이미지이다. 서밋타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목표와 미래가 생생하게 앞당겨 보일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Practice. 실천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처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끝으로 2025년 한해는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을 통하여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237나라 5천 족속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오의 인생을 통해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약하지만 말씀과 복음으로 훈련되고 은혜를 주시사 영적 서밋이 되어 행통한 응답을 누리는 참된 성공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